



2024년 봄
이요셉, 이예임, 예진, 상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
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가복음 15:14-15)

예수의 죄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를 놓아주기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십자
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다시금 목상합니다. 크든 작든 나의 결정이 주변이나 상황 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내 기준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전 대학생 시절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며 지금도 동일한 질
문을 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사 온 지 벌써 3~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서 만나 교제하고 정을 주고받으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삶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뒤 돌아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시작 지점에서는 막막함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
한 것은 이국땅에 살기 위한 비자가 해결되고 매일 만나며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장 직원들이 있
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장사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하여 베풀고자 하시는 섬김의 마음
을 쫓아 상황을 조사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D 종족 신앙 공동체 2세들의 교육을 섬기는 교육인의 삶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줄곧 하여 왔는데,
이런 교육의 경험, 지식, 나눔의 **교육사역**을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소식지에서 이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 세미나 및 진학 상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대학교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육을 통
한 섬김을 해 왔고, 특히 선교사 자녀(Mission Kids/MK) 교육과 진학 상담을 오랫동안 해 왔기에 나름 전문
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섬겨왔던 선교사 자녀(MK) 학교와 M시를 떠나 왔지만, MK 교육
세미나 및 진학 상담 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넓지만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인
도네시아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자카르타의 외각으로 이사 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대도시 혹은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 지역은 자녀 교육 및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 교육 환경 및 정보 수집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사역하고 있는 지방 지역을 오고 가는 데 이틀 혹은
그 이상이 걸리지만 직접 방문하여 3일 정도 세미나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섬의 P 지역을 방문하
여 그곳의 교육 환경을 조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녀 교육을 잘 할 방법을 찾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
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나누고 조언하고 상
담하였습니다. 서부자바의 S 지역, 보르네오섬의 P 지역도 조만간 방문하여 교육 세미나와 상담을 하게 됩니
다.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통해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특히 학업과 진학에 관해 좀 더 신경 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세미나 이후에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만나 더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MK 고등학생들과
온라인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월 말이 되니 미국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작년
에 상담하였던 MK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제가
더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한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자라고 공부해
왔고, 이제 부모와 사역지를 떠나 본인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되는 대학 진학을 좀 더 잘 준비하여 나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 아이들과 부모 선교사 가정을 섬기고자 합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 이사회. 지난 소식지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듯이 M 시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사로 섬김을 마치고 떠났지만 학교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사회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가르치거나 행정에 동참은 해 보았지만, 운영구조(거버넌스) 속에 참여는 처음이어서 낯설고 공부하여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모든 자료와 의사 진행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읽고 쓰고 토론할 게 많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두 달에 한 번씩 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해 M 시를 오고 가는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 학교의 운영 시스템과 정책 결정 등의 과정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좋고, 이 학교를 계속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지인 사역자 자녀 교육. 저희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가며 사역하는 정말 헌신된 많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역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 역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며 살아갑니다. 외국인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 가정에 대한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섬기는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교사 자녀 교육뿐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조사하며 비슷한 부담을 가진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가기 원하는 사역자 자녀의 진학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동대학교에 진학하기 원하는 한 사역자 자녀를 위해 계속 상담하며 관련 정보(장학금, 지원 방법 등)를 제공하며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 후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재정의 어려움 없이 한국의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계 자체의 국내 선교기관이 여럿 있는데, 이곳을 접촉하여 현지인 사역자 가정 특히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섬길 수 있는 협력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현지 선교단체의 멤버 케어 담당자나 단체 리더와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역자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단계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닌, 이곳 사역자들과 함께 서로 힘을 모아 서로 도전하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기에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연합하여 부모의 헌신에 따라 본인도 헌신하여 살아가는 현지인 사역자 자녀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섬김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가족 모두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2. (이요셉) 화학 공장의 근로자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며, 함께 동역하는 L, K 선교사와 좋은 협력을 만들어 가도록. 선교사 자녀 학교 이사회 섬김 뿐 아니라 교육 관련 사역을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서부자바 S 지역과 보르네오 P 지역에서의 교육 세미나가 잘 진행되고 참석하는 선교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3. (이예임) 중보기도와 말씀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열리도록. 지방 방문을 위한 장거리 여행이 잦아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곤 하는데, 건강을 잘 관리하고 피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4. (이예진) 대학원 생활 잘 감당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상화)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좋은 신앙의 지체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